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Kstat Report

67호 || 2023년 1월 26일

신년특집 ②

국민 스스로 만든 2023년 토정비결

■ 특별로 보는 [2023년 토정비결]

_ 12간지(띠)별 2023년 토정비결

■ 조사결과 세부 분석

- _ 국민들, '경제적 삶'에 다소 걱정하는 모습
- _ 2023년 전반적 삶 전망 : '보통' 수준 약간 상회
- _ 경제적 수입 전망 :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 많아
- _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 : '경제적 수입 전망'보다 낮아
- _ 자신의 건강, 인간관계 전망 : 모든 계층 '보통' 이상
- _ 연인, 가족관계 전망 : 긍정점수 더 높아져
- _ 상/하반기 구분 전망 : 하반기 낙관 전망 높아
- _ 생각지 못한 불운/행운 전망 : 행운 전망 우위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1월 6일(금) ~ 1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특별로 보는 [2023년 토정비결]

- 2023년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올 한해 삶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진 결과를 토대로 특별 [2023년 토정비결]을 정리함
 -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종합한 결과이고, 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내용 뒤에 게시되어 있음
- 다음은 같은 띠를 가진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한 2023년 새해 전망임
 - 특별 토정비결 설명내용은 국민의견에 맞춰 케이스탯에서 작성함



토끼띠

99,87,75,63,51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애정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폭풍우 치는 해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학업 또는 직장,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대인 관계도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포근히 안아줄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부부 또는 연인과의 원만해 마음은 풍족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 작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토끼띠 유명인 : 한효주, 천우희, 이선균, 이승기, 나경원, 성일종, 송영길, 김의겸 등



용띠

00,88,76,64,52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애정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인생의 긴 길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를 때입니다. 특히 학업이나 직장, 사업에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예상치 못한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또는 연인이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가정도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작은 불운이 찾아오겠지만,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띠 유명인 : 배종옥, 한석규, 유이, GD, 송가인, 박근혜, 박병석, 원희룡, 이재명, 이낙연 등



뱀띠

01,89,77,65,53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애정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뜻한 것은 많지만 다 이룰 수 없어 고단한 해입니다. 직장이나 사업, 대인관계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재물과 이성간의 사랑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화목한 가정에서 큰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좋아지는 해이고, 작은 행운도 기대됩니다.

뱀띠 유명인 : 김희선, 원빈, 태연, 싸이, 이명박, 문재인, 정우택, 정청래, 조국, 이상민 등



말띠

02,90,78,66,54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애정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일들이 있어 만족할 만한 해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순탄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을 비롯해 연인, 가족관계가 좋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행운도 없지만 불운도 없습니다. 하반기에 웃는 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말띠 유명인 : 하지원, 김태리, 윤아, 하정우, 이승철, 구광모, 백종원, 홍준표, 박지원 등

**양띠**

03,91,79,67,55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좋은 일과 함께 나쁜 일도 따라오는 해입니다. 학업이나 직장, 사업에서 난관에 부딪혀 재물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부 또는 연인과 사랑이 커지고 가정도 원만하니 소소한 기쁨이 많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내년이 기대됩니다. 행운도 없지만 불운도 없습니다.

양띠 유명인 : 김희애, 송강호, 이효리, 성시경, 이재용, 이해진, 장제원, 이양수, 김경수 등

**원숭이**

04,92,80,68,56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원하는 것을 다 갖는 최고의 해를 보낼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건강이 유지되고, 연인과 가정도 화목합니다. 대인관계도 잘 풀리고, 직장 승진이나 사업 성공을 통해 재물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상반기도 좋지만 하반기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큰 행운도 기대됩니다.

원숭이띠 유명인 : 김태희, 선미, 조정석, 옥주현, 손흥민, 이재용, 정용진, 박진, 한명숙 등

**닭띠**

05,93,81,69,57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힘든 것 같으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견딜 만한 해입니다. 이성과의 애정이 좋아지고, 가정도 즐거우니 집에서 느끼는 행복이 큼니다. 직장에서 일이 좀 안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재물이 안들어와도 과녁치 마십시오. 하반기에 강력한 운세와 행운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닭띠 유명인 : 전지현, 송지효, 손예진, 강동원, 박보검, 아이유, 문희상, 노웅래 등

**개띠**

06,94,82,70,58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오래도록 준비한 일들이라도,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해입니다. 계획했던 학업이나 직장, 사업이 뜻한대로 되지 않아 재물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성과의 사랑이 두터워지고, 부모·형제관계도 돈독해지니 기회를 도모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니, 내년을 도모해 보십시오.

개띠 유명인 : 김혜수, 이병헌, 황정민, 현빈, 수지, 비, 장기하, 정익선, 유승민, 김부겸, 추미애 등

**돼지띠**

07,95,83,71,59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나쁜 일은 작게 오고, 좋은 일은 크게 오는 행복한 해입니다. 최고로 건강한 해이니 그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또 이성관계, 대인관계, 가정 등 모든 곳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 뜻대로 안된다고 아쉬워 하지 마세요. 하반기, 작은 행운과 함께 행복이 더 커질 것입니다.

돼지띠 유명인 : 이하늬, 손담비, 고현정, 마동석, 송일국, 김기현, 김은혜, 유시민, 심상정 등

**쥐띠**

08,96,84,72,60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신중한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학업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연인과 다툼 때문에 건강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재물은 투자하는데 쓰이니 모으려 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가정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불운을 신경쓰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입니다.

쥐띠 유명인 : 고소영, 신민아, 장동건, 이하이, 유재석, 윤석열, 오세훈, 권성동, 정진석, 주호영 등

**소띠**

09,97,85,73,61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새 해에는 행복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부 또는 연인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며, 재물도 들어올 것입니다. 다만 학업이나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비슷하게 행운이 따르지만, 작은 불운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십시오.

소띠 유명인 : 전도연, 송윤아, 고준희, 정우성, 임창정, 송소희, 썬양, 양금희, 이준석, 정성호 등

**호랑이띠**

10,98,86,74,62년생

2023년 총운 ★★★★★☆

재물운 ★★★★★☆

건강운 ★★★★★☆

애정운 ★★★★★☆

가정운 ★★★★★☆

학업·직장·사업운

★★☆☆☆☆

대인관계 ★★☆☆☆☆

상반기운 ★★★★★☆

하반기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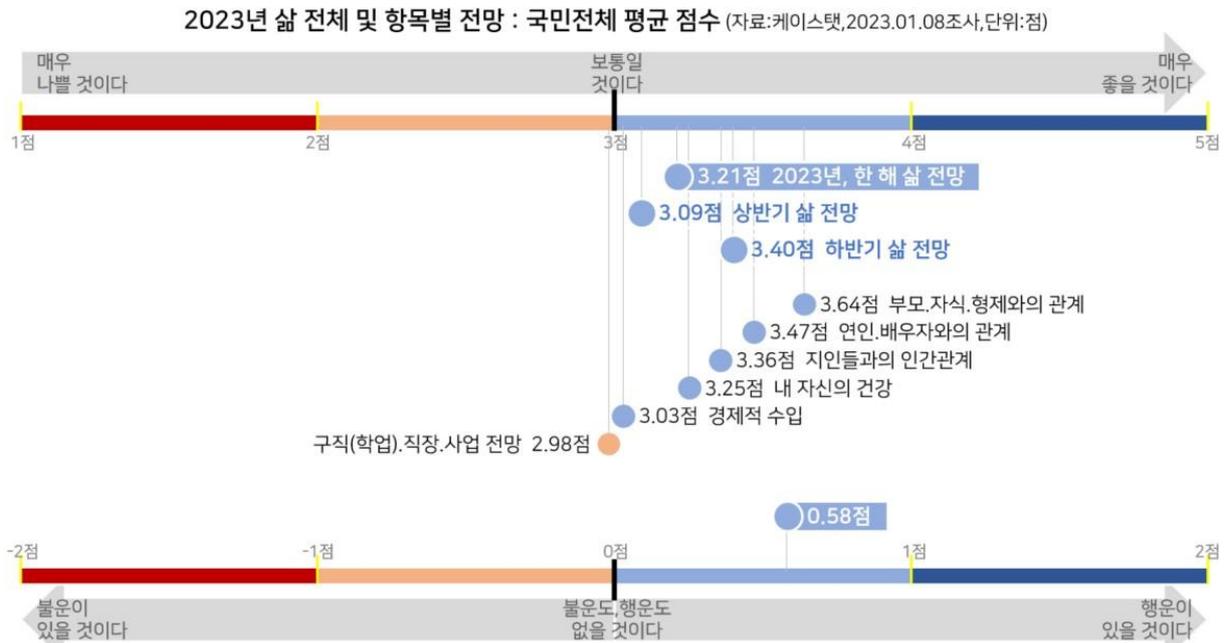
비교적 기쁜 일들이 많은 해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 최고에 달하고, 가정도 원만합니다. 건강도 걱정 없고, 재물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학업이나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를 겪고, 대인관계에서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하반기에 대운이 찾아와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유명인 : 문소리, 유아인, 류준열, 김옥빈, 보아, 다현, 조용필, 이승기, 안철수, 우상호, 유은혜 등

▶ 조사결과 세부 분석

□ 국민들, '경제적 삶'에 다소 걱정하는 모습

- 우리 국민들은 2023년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음
- 먼저 2023년 삶 전체에 대한 전망 점수는 3.2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스스로 생각하실 때, 올 한해 선생님의 삶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좋을 것이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점수를 높게 응답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또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함
 - 상반기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3.09점이고, 하반기는 3.40점으로 보통을 상회함
-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경제적 삶'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임
 - '경제적 수입'은 보통 수준인 3.03점을 기록하고,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은 2.98점으로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함
 - 경제영역 외 항목들은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함(4점 미만)
- 한편, '불운'과 '행운' 중에서는 조금이나마 '행운'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2023년, 생각지도 못한 불운 또는 행운 전망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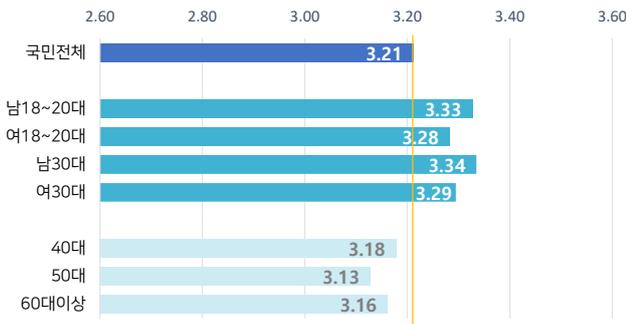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경제적 고통을 겪었지만, 2023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 고물가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결과로 분석됨
 - : '경제적 삶'을 걱정하는 만큼, 올 한해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특히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아, 경제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임
 - : 작년 하반기에 일부 기업부터 시작한 '명예퇴직'이 올해는 상당수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특히 고용불안과 취업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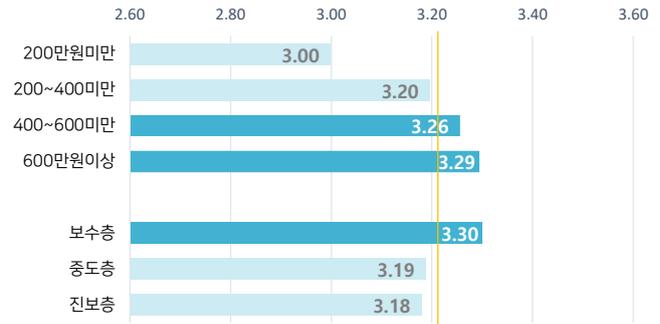
□ 2023년 전반적 삶 전망 : '보통' 수준 약간 상회

- '2023년 삶 전반에 대한 전망'을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보통일 것이다'에 해당하는 3점보다 약간 높은 3.21점을 기록함
 - 1점은 '매우 나쁠 것이다'이고, 3점은 '보통일 것이다', 5점은 '매우 좋을 것이다'는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국민전체 평균 점수(3.21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한 계층은 △2030세대 △400만원 이상 소득층 △보수층 △화이트칼라, 학생 △서울, 충청, 호남, TK 등임
 - 그림에서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균(3.21점)을 의미하고, 짙은 푸른색 막대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뜻함. 옅은 붉은색 막대는 평균보다 낮으면서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임
- 이에 비해 국민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4060세대 △400만원 미만 소득층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인천.경기, PK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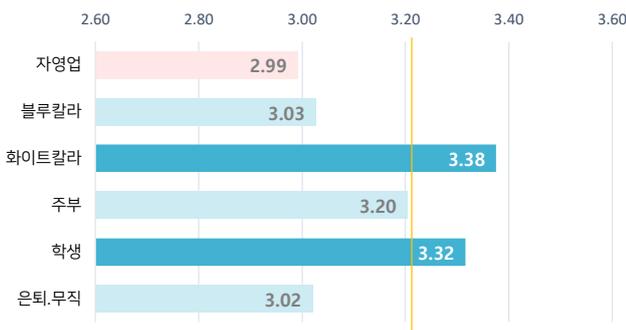
2023년 삶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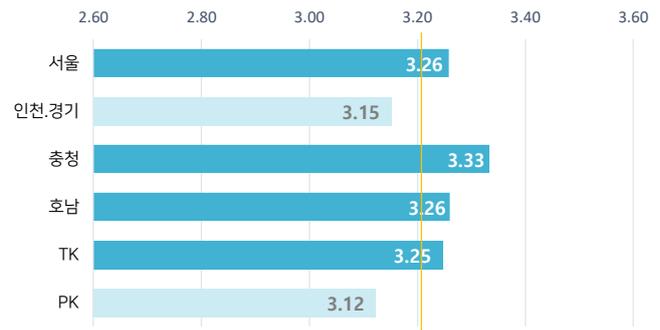
2023년 삶 전망 : 소득별,이념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2023년 삶 전망 : 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2023년 삶 전망 : 지역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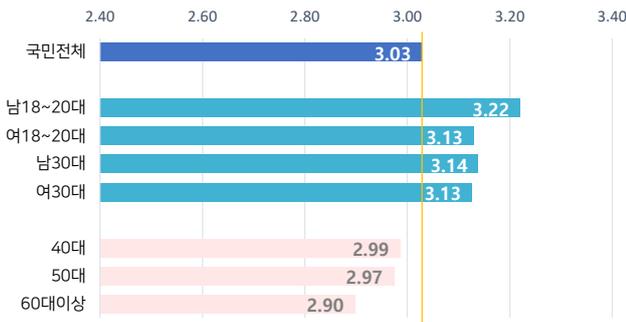
- ☑ 우리 국민들의 새해 전망은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고, 계층별로 전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세대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2030세대는 긍정적인데 비해 4060세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임
 - : 직업별 편차도 커,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가장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지만 블루칼라와 자영업자는 부정적임
 - : 블루칼라 종사자는 고용불안감이 크고, 자영업자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임
- ☑ 한편,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은 '좋을 것이다'는 수치가 가장 높아 중도·진보층과 대비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차이 때문으로 분석됨

□ 경제적 수입 전망 :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 많아

- '경제적 수입 전망'에 대한 국민 전체 평점은 3.03점으로 '보통'(3점)을 약간 상회함
 - 1점은 '매우 나쁠 것이다'이고, 3점은 '보통일 것이다', 5점은 '매우 좋을 것이다'는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국민전체 평균 점수(3.03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2030세대 △400만원 이상 소득층 △보수층 △화이트칼라, 학생 △서울, 충청, 호남, TK 등임
 - 그림에서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균(3.03점)을 의미하고, 짙은 푸른색 막대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뜻함. 옅은 붉은색 막대는 평균보다 낮으면서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임
- 국민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4060세대 △400만원 미만 소득층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인천.경기, PK 등임
 - 이들 중 상당수 계층은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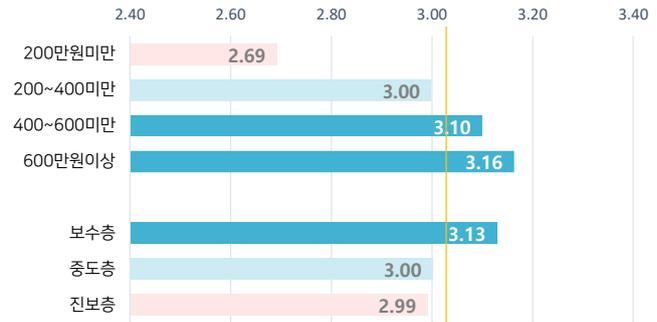
경제적 수입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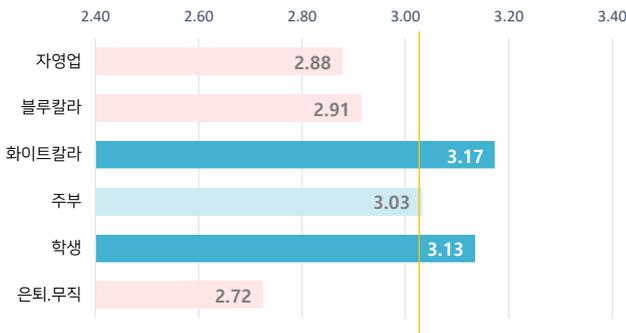
경제적 수입 전망 : 소득별,이념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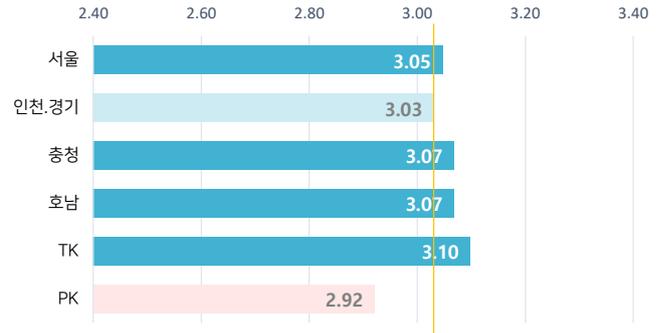
경제적 수입 전망 : 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경제적 수입 전망 : 지역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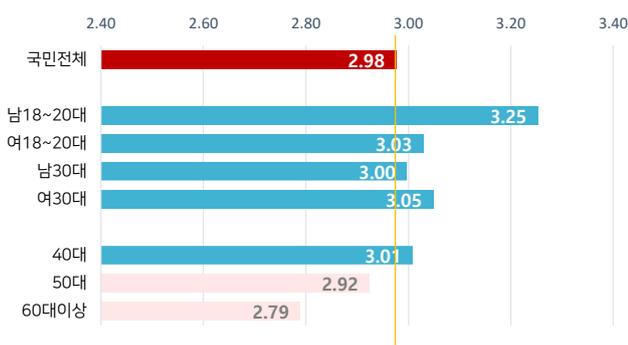
Kstat Point

- ☑ '경제적 수입 전망'의 긍정/부정 계층과 앞서 '2023년 전반적 삶 전망' 긍정/부정 계층이 동일함
 - : 즉, 2023년 전반적 삶 전망에 있어 경제적 수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음
- ☑ 또한 '경제적 수입 전망'이 국민 전체보다 낮은 계층 대부분이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점도 주목되는 지점임
 - : △4060세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진보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PK 등은 경제적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올해 세계 경제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우리나라도 1%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러한 경제불안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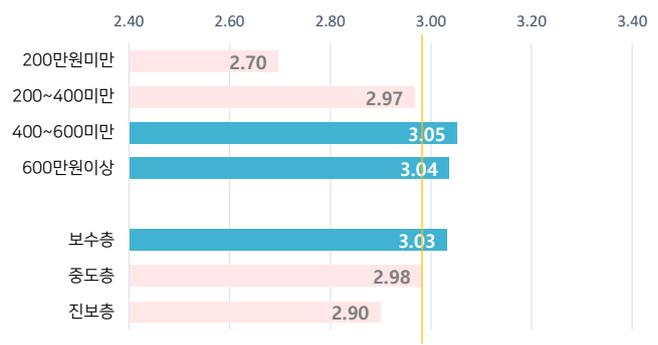
□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 : '경제적 수입 전망'보다 낮아

- 경제적 활동인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에 대한 평균 점수는 2.98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경제적 수입 전망'(3.03점)보다도 낮음
 - 1점은 '매우 나쁠 것이다'이고, 3점은 '보통일 것이다', 5점은 '매우 좋을 것이다'는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국민전체 평균 점수(2.98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2030세대, 40대 △400만원 이상 소득층 △보수층 △화이트칼라, 학생 △서울, 충청, TK 등임
 - 그림에서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균(3.03점)을 의미하고, 짙은 푸른색 막대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뜻함. 옅은 붉은색 막대는 평균보다 낮으면서 '보통'(3점) 보다 낮은 수치임
- 국민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5060세대 △400만원 미만 소득층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인천.경기, 호남, PK 등임
 - 이들 중 상당수 계층은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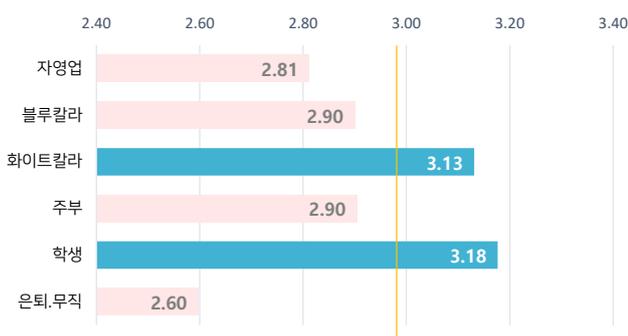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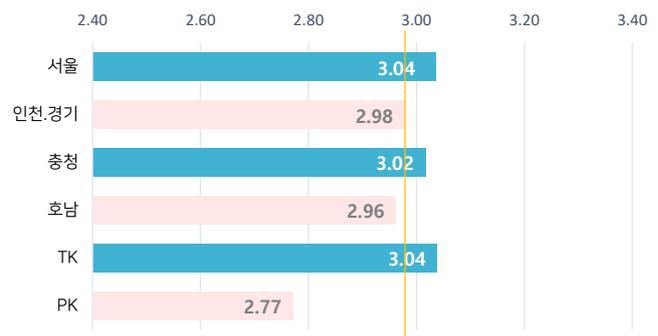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 : 소득별,이념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 : 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 : 지역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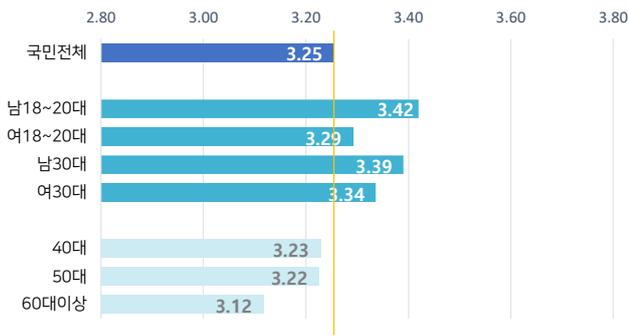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구직(학업).직장.사업 전망'은 앞서 '경제적 수입 전망'보다 부정적이고, 계층별 편차도 더 확대됨
 - : 그만큼 취업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이른바 '경제적 약자'에 그 불안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60대이상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등의 점수가 특히 낮음
- ☑ 국민들은 2023년의 '경제적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은 대부분 계층에서 확인되는 정서임
 - : 2022년에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2023년에는 그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 향후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핵심 평가 기준은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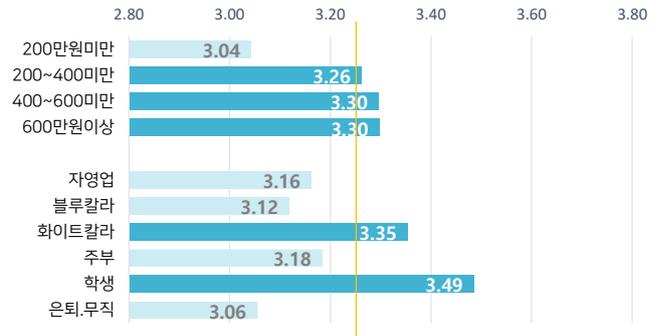
□ 자신의 건강, 인간관계 전망 : 모든 계층 '보통' 이상

-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함 (3.25점)
 - 1점은 '매우 나쁠 것이다'이고, 3점은 '보통일 것이다', 5점은 '매우 좋을 것이다'는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편차가 있지만, 모든 계층이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함
 -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2030세대 △200만원 이상 소득층 △화이트칼라, 학생 등임
 - 그림에서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을 의미하고, 짙은 푸른색 막대는 평점 이상의 수치를 뜻함
- 또한 '지인들과의 인간관계 전망'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3.36점)
- 이 역시 계층별 편차가 있지만, 모든 계층이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함
 - 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남녀 20대, 60대이상 △400만원 이상 소득층 △화이트칼라,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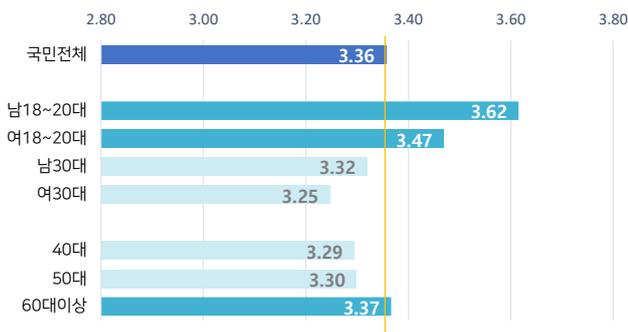
자신의 건강 전망 : 국민전체, 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 2023.01.08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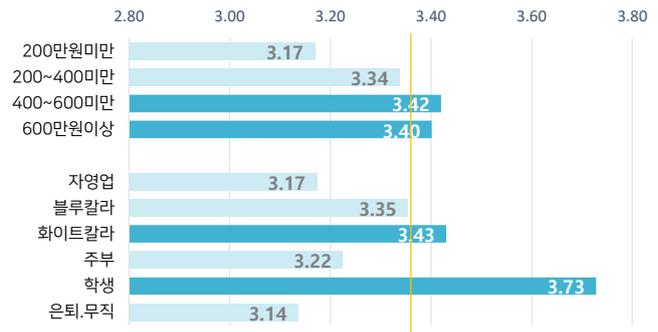
자신의 건강 전망 : 소득별, 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 2023.01.08조사, 단위:점)



지인들과의 인간관계 전망 : 국민전체, 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 2023.01.08조사, 단위:점)



지인들과의 인간관계 전망 : 소득별, 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 2023.01.08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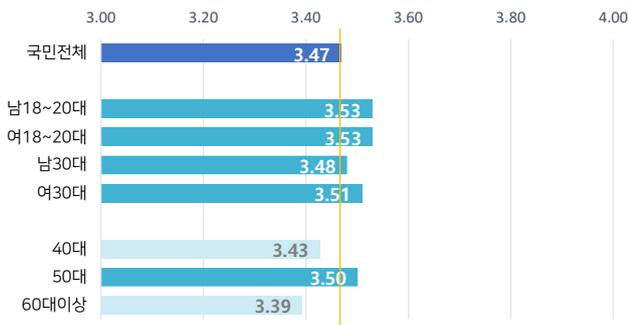
Kstat Point

- ☑ 경제적 삶 관련 전망과 달리 '자신의 건강'과 '지인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함
 - : 국민 전체는 물론 모든 계층에 걸쳐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해, 일반적인 정서로 판단됨
- ☑ 계층별로 살펴보면 △남녀 20대 △400만원 이상 소득층 △화이트칼라, 학생 등은 앞서 경제전망을 포함해 한결같이 국민 전체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 400만원 이상 소득층과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결과로 분석됨
 - : 남녀 20대와 학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투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러한 미래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그만큼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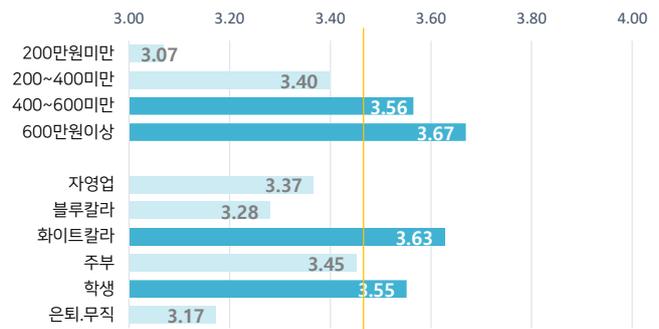
□ 연인, 가족관계 전망 : 긍정점수 더 높아져

- ‘연인.배우자와의 관계 전망’은 ‘보통’을 상회하는 3.47점을 기록함
 - 1점은 ‘매우 나쁠 것이다’이고, 3점은 ‘보통일 것이다’, 5점은 ‘매우 좋을 것이다’는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편차가 있지만, 모든 계층이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함
 -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2030세대, 50대 △400만원 이상 소득층 △화이트칼라, 학생 등임
 - 그림에서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을 의미하고, 짙은 푸른색 막대는 평점 이상의 수치를 뜻함
- 또한 ‘부모.자식.형제와의 관계 전망’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3.64점)
- 이 역시 계층별 편차가 있지만, 모든 계층이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함
 - 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남녀 20대 △400만원 이상 소득층 △화이트칼라, 학생 등임

연인.배우자와의 관계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연인.배우자와의 관계 전망 : 소득별,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부모.자식.형제와의 관계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부모.자식.형제와의 관계 전망 : 소득별,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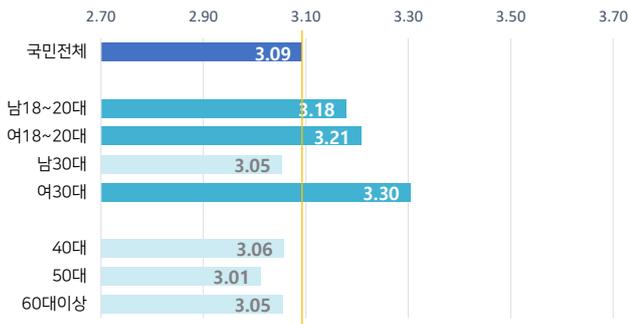
- ☑ 우리 국민들의 인간관계 전망을 종합하면, ‘지인들 < 연인.배우자 < 부모.자식.형제’ 순으로 점수가 높아짐
 - : 이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됨
 - : 우리 국민은 평소 ‘가족의 행복’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5호 『사회.가족.개인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참고)
- ☑ 한편, 계층별 응답에 있어 △남녀 20대 △400만원 이상 소득층 △화이트칼라, 학생 등은 이번 항목에서도 국민 전체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 이번 조사에서 2023년을 가장 자신있게 바라보는 계층이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계층인 것으로 보임

□ 상/하반기 구분 전망 : 하반기 낙관 전망 높아

- 2023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삶이 어떨 것인지 질문한 결과, 상반기는 ‘보통’(3점)을 약간 웃도는 3.09점이라고 응답하고, 하반기는 3.40점으로 높아짐
 - 1점은 ‘매우 나쁠 것이다’이고, 3점은 ‘보통일 것이다’, 5점은 ‘매우 좋을 것이다’는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상반기에 대한 국민전체 평균 점수는 3.09점**으로 ‘보통’(3점) 미만을 기록한 계층도 존재함
 - ‘보통’ 미만의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영업,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등임
 - 그림에서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을 의미하고, 짙은 푸른색 막대는 평점 이상의 수치를 뜻함. 옅은 붉은색 막대는 평점보다 낮으면서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임
- 이에 비해 **하반기에 대한 국민전체 평균 점수는 3.40점**으로 낙관적으로 바뀌고, 계층별로도 모든 계층이 ‘보통’(3점) 이상으로 응답함

상반기 삶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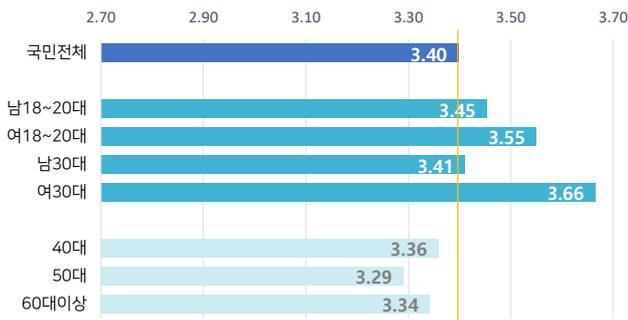
상반기 삶 전망 : 소득별, 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하반기 삶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하반기 삶 전망 : 소득별, 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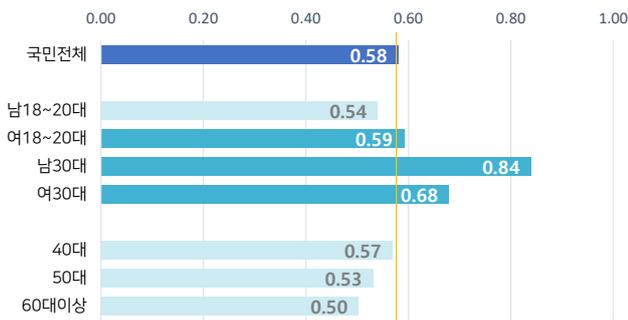
Kstat Point

- ☑ 상반기 삶보다 하반기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데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하반기에는 완화 또는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임
 - :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예측함
 - : 이러한 예측이 실현될 경우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 국민의 경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됨
- ☑ 국민들이 전망하는 2023년 삶은 ‘경제문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전적으로 ‘경제정책’ 성과에 달려 있음

□ 생각지 못한 불운/행운 전망 : 행운 전망 우위

- ‘2023년 한 해 동안 선생님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불운이나 행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근소하게 ‘행운이 있을 것이다’고 응답함
 - 국민전체 평균 점수는 0.58점으로 ‘행운이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우위를 나타냄
 - ‘보통일 것이다’ 0점을 기준으로 ‘불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응답하고(최대 -2점), ‘불운도, 행운도 없을 것이다’는 0점, ‘행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최대 2점)를 응답한 결과임
- **국민전체 평균 점수(0.58)**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여자 20대, 남녀 30대 △400만원 이상 소득층 △보수층, 진보층 △화이트칼라 △충청, 호남 등임
 - 그림에서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균(0.58점)을 의미하고, 짙은 푸른색 막대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뜻함
- 국민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20대, 4060세대 △400만원 미만 소득층 △중도층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서울, 인천.경기, TK, PK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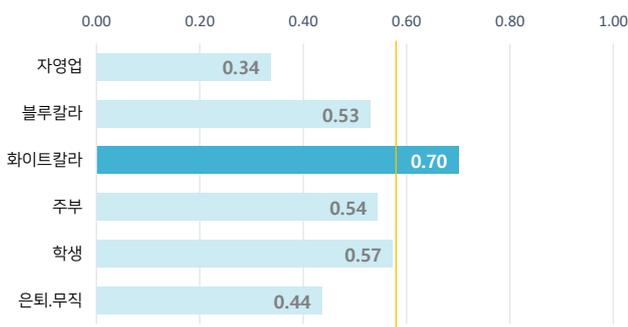
불운 또는 행운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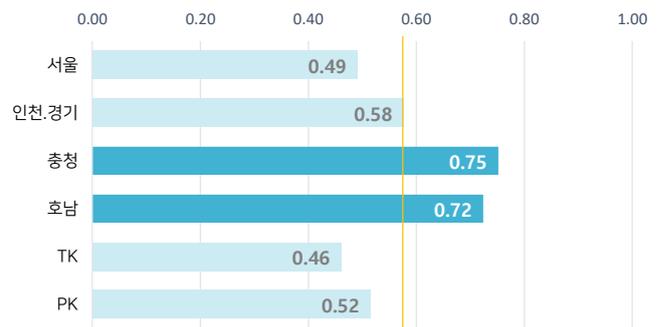
불운 또는 행운 전망 : 소득별,이념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불운 또는 행운 전망 : 직업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불운 또는 행운 전망 : 지역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삶이 예견되는 2023년을 맞아 약간의 ‘행운’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계층별로 행운을 바라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계층에 걸쳐 ‘행운’을 기대하고 있음
- ☑ 이러한 ‘행운’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임
 - :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하락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임
 - :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둔 해라는 특성을 볼 때, 이러한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총선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8,6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8호와 69호는

각각 2월 9일(목요일), 2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2월 사회지표는 2월 1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